

'더 특별한 전북, 관광으로 이음'

전북문화관광재단, 13일까지 관광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5~13일까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4 관광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 특별한 전북, 관광으로 이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재단의 올해 관광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4일 재단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을 대표하는 전담 기구로, 콘텐츠 발굴, 특화상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에 사업별로 나눠 소규모로 진행되던 성과공유회를 통합해 모든 사업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5일에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개막식에서는 2024년 전북 관광의 종합 성과 발표와 함께 도내 우수 관광기업의 성공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 라운딩을 통해 재단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13일까지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관광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한다.

첫 번째 테마인 '머물고 싶은 전북 여행'에서는 도내 장기 체류 여행자 유치를 위한 관광 콘텐츠 발굴 성과와 여행 지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은 지역 관광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전북의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엮을 수 있다. 특히 해당 테마는 올해 8월 출범한 글로벌마이스육성센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매력 넘치는 전북 관광'에서는 해외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전북의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함께 만드는 관광'은 지역과의 업무협약과 협력사업 등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 성과를 조명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가 특별한 전북 관광의 매력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422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주기린미술관 전관서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데이'를 열었다.

제6회 전북자치도 디자인데이 성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작품 전시·디자인 역할·가치 조명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주기린미술관 전관서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민과 디자인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및 디자인기업과 도내 디자인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디자인데이는 분야별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센터 디자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한 과제와 도내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 전시로 구성하며 도내기업의 디자인 현안을 반영한 작품들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도내 디자인기업과 디자인학과 졸업생 간 매칭을 위한 '디자인 구인안내'를 마련해 우수한 디자인 인재 발굴과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교육생들의 작품 전시와 지속가능한 소재와 프로세스를 적용한 CMF 플랫폼 전시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소재 디자인 사례를 소개했다.

전시에서는 제품, 시각, 환경, 브랜드 등의 다양한 분야별 디자인 작품으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했다. 디자인 학과 학생들과 디자인기업 작품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디자인산업의 특화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오택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디자인데이 행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디자인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문화포럼 나니레, 설씨부인전 공연

오는 6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문화포럼 나니레(대표 이희정)가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조선 중기 여성 문인인 설씨부인의 삶과 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극 '설란(雪蘭) 홍지(紅紙)에 피다. 음악극 설씨부인전(이하 설씨부인전)'이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이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 초연작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설씨부인의 대표 작품 권선문첩을 기반으로 그녀의 삶과 문학적 가치를 오늘날의 감성으로 풀어낸 음악극이다.

설씨부인은 조선 중기 대표적 여성 문학가로, 문학을 통해 선한 가치를 전했던 인물이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내는 것을 넘어, 전통음악과 창작곡을 통해 그녀의 감정과 메시지를 무대 위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제작 과정에서 설씨부인의 철학이 실현됐다. 여성 창작자들과 배우들이 육아와 예술 활동을 병행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설씨부인전은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권 예매는 전화(010-3841-2080)를 통한 사전 예약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문화포럼 나니레(010-3841-208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캐나다 투어 성료

월드뮤직 앙상블 '콘스탄티노플'과 공동 제작 공연 뜨거운 호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캐나다 공연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4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이번 캐나다 투어는 2023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소리축제가 월드뮤직 앙상블 '콘스탄티노플'과 공동으로 제작해 많은 호평을 얻었던 <re:Orient> 공연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2025-2026 시즌 유럽&북미투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리축제는 그동안 판소리를 통한 국제협력력을 이어 오며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번 공연 역시 이에 대한 결과로 해외 투어까지 연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소리축제의 세 번째 판소리 프로젝트로 제작된 <re:Orient>는 판소리와 페르시아 음악의 콜라보 무대로 판소리 다섯바탕의 각 눈대목 그리고 페르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루미(Rumi)와 하페즈(Hafez)의 시가 어우러진 총 다섯 곡으로 구성됐다.

캐나다 공연에서는 지난해 선보인 초연작에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인 무대로 현장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언어는 다르지만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새로운 소리와 음악

에 캐나다 관객들은 집중했고, 공연팀은 매회 기립박수를 받았다. 또한, 관계자들로부터 공연 문의와 콜레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이란 출신의 세타르(Setar) 명인 '키야 타바시안'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콘스탄티노플과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판소리 정상희 명창 그리고 오병욱 대금 연주자, 이상화 고수가 함께 참여해 음악에 한국적인 색채를 담았다.

정상희 명창은 "소리축제를 통해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한 이번 작업은 서로의 음악에 대한 유사점을 발견하고, 미묘한 변화 속에서 조화를 이뤄내 관객과 소통하는 진정한 ' 만남 '이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들이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는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며 "그간 소리축제의 국제교류는 판소리와 우리 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높여왔다. 앞으로도 지역 예술가들이 소리축제를 통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서문초 '우리가 꿈꾸는 동그라미', 전국어린이연극잔치 금상

전주서문초등학교의 '우리가 꿈꾸는 동그라미'가 제31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노을이 지도교사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르코 꿈발극장에서 열린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는 지역 대표를 거쳐 선발된 6개 초등학교가 참가했다.

특히 전북어린이연극은 올해도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면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초등 교육연극연구회 및 전복교사극단 소속 교사들의 노력과 전북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다.

전주서문초의 '우리가 꿈꾸는 동그라미'는 2050년 미래사회의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에 로봇과 인간의 차이와 차별, 소통과 관계를 보여줬다.

/장은성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행복을 전하는 음악 '송년 콘서트' 20일 개최

행복을 전하는 음악 '2024년 송년 콘서트'가 오는 20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2024년 송년 콘서트는 기상청 아나운서 이진주씨의 사회로 신예 트로트 가수 차창민의 오픈링 공연으로 '그대없이 못살아', '잊초미', '모나리자' 등 신명나는 무대와 k-pop의 선두 주자인 래준&양양의 '달려달려', '아파트' 등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다. 또, R&B의 여왕 린의 감미로운 보이스로 'My

Destiny',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시간을 거슬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열심히 달려온 올 한 해를 위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하는 염원을 담아 김제시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함을 함께 선사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한편 관람권은 오는 10일 오전 8시부터 대공연장 로비에서 김제시민(신분증지참)에 한해 서민 판매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